

NEWS LETTER

2021년 5월 24일 Vol. 408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봉축법요식 참석

동국대학교의료원 채석래 의료원장은 지난 5월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법요식은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시민, 정치계 및 사부대중이 한 데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에는 채석래 의료원장의 헌화와 함께 코로나시국에서 응급실 김효주 수간호사가 치유의 등 헌등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다 함께 극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관불식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난 5월 17일 5층 법당에서 관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관불식에는 채석래 의료원장, 김광기 기획처장, 임성우 한방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능지스님을 비롯한 각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봉축법회를 대신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으로 진행됐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 병원을 찾는 환자와 교직원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 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법사 능지 스님은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참뜻은 진리를 깨닫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부처님오신날 병동 환우를 위한 자비 나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연우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5월 17일 병동 환우를 위한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원 연우회장을 비롯해 지도법사능지스님, 최기석 행정처장, 진영숙 간호부장 등이 참석해 병실을 직접 방문해 환자들에게 봉축 선물을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해원 연우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작은 선물이지만 병원에 계신 환우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맞아 직원들에 감사 선물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3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교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1,733명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병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감염 예방에 힘써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침체된 원내 입점업체 활성화를 위해 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했다.
최기석 행정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지역사회 감염예방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내원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아름다운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에 마스크 30만장 기부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지난 5월 14일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마스크 30만장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마스크는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일산(한방)병원 19만 5천 장, 경주병원 9만장, 분당한방병원 1만 5천장(15박스)을 각각 전달했다.

